



5일 개막해 23일까지 계속되는 전국연극제 기간동안 운영되는 '아트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한 자원봉사자들. 이 버스를 타면 공연장으로 직행할 수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모두 탔나요! 연극 실은 직행버스 출발합니다

■ 전국연극제, '칠개면 프로젝트' 진행

시민참여 '놀았으면' 쉬는 곳마다 흥겨운 음악·공연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어느날 신기한 아트 버스가 휙 지나갈지 모른다. 버스 지붕 위에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부착돼 있고, 버스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 조각이 흥을 돋우고 있다.

재미있는 조각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온 고근호 작가가 제작한 이 버스는 연극이 보이는, 연극을 실어나르는 '유쾌한 버스'다.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서는 흥겨운 공연이 벌어지고 이 버스를 잡아타면 연극을 볼 수 있는 공연장으로 즉시 달려갈 수 있다.

버스를 제작한 곳은 제30회 전국연극제 집행위원회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

까지 계속되는 전국연극제는 '아트버스'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 '칠개면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행사 큐레이터를 맡은 규양씨가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각 이벤트마다 컨셉에 맞는 미술가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낸 것도 특징이다.

'놀았으면'(23일까지 오후 5시30분~7시 30분·광주문화회관 광장)은 공연과 카페가 있는 드라마 정원이다. 최병렬 작가가 보리밭 무대를 꾸민 이곳에서 박종화 퀘벡, 국악그룹 아이리더, 프린세스 현악4중주단, 훌

프하임 목관 5중주단, 마네트 상사화 등이 다양한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카페테리아에서는 무료로 음료도 마실 수 있다.

'아트버스는 '가봤으면'의 한 프로젝트다. 행사 기간 내내 아트버스는 광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객들을 실어나른다. 버스가 잠시 멈출 때면 뮤지션 '따따라 휴게소'가 버스 위에서 다양한 음악을 선사하며 가면을 쓴 퍼포먼스팀의 공연도 이어진다.

'醉해~쓰면'(22일까지 오후 8시~밤1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주천 둔치)은 예술가와 함께하는 드라마 포차다. 박문종 작가가 추억이 흐르는 광주천변에 '박취집'이라는 유쾌한 술집을 만들었고, 이곳에서는 연극이 끝난 뒤 한잔술을 나누고 즉흥 퍼포먼스가 벌어진다. 문화예술인들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극인들이 고민과 희망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함께 라면'(22일 오후 6시~밤12시·무각사, 드라

마포차)은 연극문화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며 '외롭다' (16일 밤10시~12시·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광주천 둔치)은 연극인들의 네트워크 파티다.

그밖에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랬으면'(17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연극학교)은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연극 워크숍이며 '잡thats면'(23일까지)은 홈페이지(www.전국연극제.com)에서 전국연극제의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방송이다.

한편 전국연극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15개 시도대표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경연을 갖는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1만원.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으며 현물증을 갖고 가면 무료 관람도 가능하다. 문의 062-225-511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수엑스포에서 펼쳐지는 10개국 전통공연

6~10일 '아세안축제' 10개국 70여명 공연단 초빙

아시아 지역 10개국의 전통 공연이 여수 엑스포를 찾는다.

한-아세안센터(사무총장 정해문)는 4일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여수에서 '2012 아세안 축제(ASEAN Culture Tourism Fair 20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 아세안 축제'는 전통공연, 문화체험 그리고 각국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아세안 10개국 70여명의 공연단을 초청해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부터 올해 네번 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태국 바씨사완댄스, 말레

시아 민속 악기연주 등 아세안 10개국의 대표 공연단이 전통 예술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본 공연에 앞서 6일에는 여수 엑스포 홀에서 아세안 10개국 공연단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서울 공연은 9·10일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 내 디큐브파크 야외무대에서 열리며 아세안 커피와 동남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아세안 키친'도 운영한다.

한편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의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싱가포르 Little Red Dot 공연단.

“작곡가 최영섭의 ‘망향’ 배워요”

광주우리가곡부르기 8일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그리운 금강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곡으로 꼽히는 곡이다. 광주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가 '그리운 금강산'을 만든 최영섭(사진) 작곡가의 곡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카페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팔손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씨가 직접 가사를 쓰고 곡을 부친 '망향'을 함께 배운다.

이번 6월 행사에서는 '비목',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떠나가는 배', '가고파' 등 친숙한 가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한다.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유열자씨와 김재규씨가 참석해 '영혼의 바다'와 '아! 동방의 아침나라'를 선사한다.



광주우리가곡부르기는 매월 첫번째 월요일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43번째 만남을 가졌다.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을거리와 커피를 제공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국연극제 집행위원장 최영화씨

“광주시민들 많이 오셔서 좋은 작품 만나세요”

5일 개막하는 제30회 전국연극제는 전국 1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다. 광주연극협회와 지역예술인들이 중심으로 구성된 전국연극제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개막식을 하루 앞둔 4일 인터뷰 한 최영화(광주연극협회장) 집행위원장 역시 마지막 점검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각지에서 참여하는 연극인들이 최고의

상태에서 경연을 마칠 수 있도록 무대 등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경연이 끝난 후에는 맛의 고장인 광주에서 잘 먹고 잘 쉬다 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를 알 수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이나, 대인사당 등 다양한 곳들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위원장은 또 “올해가 전국연극제가 열

린 지 30년이 되는 터라 광주에 오는 연극인들이 30주년이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후 전국연극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도 오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했다.

“이번에 광주 시민들을 만나는 공연들은 전국에서 모두 예선을 거쳐 대표성을 띠고 참



가하는 작품들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심을 가지시면 다양한 할인혜택들을 통해 좀 더 저렴하게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국연극제가 대통령상이 걸려있는 경연이다 보니 무대에

서는 배우들이 매우 민감합니다. 문화 광주 시민답게 공연예절을 잘 지켜주시는 건 감사하겠습니다.”

최 위원장은 연극 관람 뿐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놀았으면' 등 '칠개면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 봉사 OFF SALE**

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